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총력전

정읍시·전북도·기업·연구기관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 간담회
공모 진행 상황·지원사업 등 공유



지난 11일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첨단산업단지 바이오-혁신기
관·기업 상생 발전 간담회', 이학수 시장과 김관영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연구기관 및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전북연구개발특구인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자체·기업·연구기관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김관영 전북도 지사를 비롯해 영영선 도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장병엽 소장 등 연구기관 종사자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산업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현황과 정읍시와 전북자치도의 기업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지원사업 등을 공유했다.

또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AI(인공지능) 등의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이라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읍과 전북자치도가 갖고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연·병·관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

한편 시는 '첨단과학산업도시'를 장기 비전으로 정하고 신정동 일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했고,

일대에 혁신연구기관 유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았고 관련 기업체 유치와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인프라와 R&D 생태계 기반을 다져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의 R&D 연구 기술력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전북도와 함께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종합병원, 학생 40명에 2760만원 장학금 고(故) 조병채 원장 유지...32년간 1568명에게 11억 3526만원



고창군 석천재단 고창종합병원(이사장 조남열) 제32회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1일 고창종합병원 5층 신관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선발된 장학생 40명을 비롯해 각 학교 관계자, 고창종합병원 장학회장 조남열 이사장,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진>

석천재단 고창종합병원 장학회는 지난 1992년 11월 고창종합병원 설립자 고(故) 조병채 원장의 유지와 신념으로 고창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해 설립됐다.

장학회 규정에 따라 고창군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와 각 고등학교장,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장애인 복지관장, 고창군 청소년 상담센터 및 드림스타팀장의 추천, 고창경찰서 등 협력기관

장의 추천을 받았다. 올해는 고창고, 고창자유고, 강호항공고, 영선고, 고창북고 등 지역 고교생 총 40명에게 총 2760만원을 수여했다.

재단은 지난 1993년 1회 40명에게 20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고창종합병원 장학회 장학사업으로 32년간 총 1568명에게 누적장학금 11억 3526만원을 지급했다.

조남열 이사장은 "고창종합병원은 지난 1988년 개원 이래로 고창지역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의료와 복지 그리고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무엇을 하든 부모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함께 했음을 잊지말 것, 어떤 어려움이 있든 미래의 목표와 꿈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10월 남원국제드론제전 준비 '착착'

드론레이싱 마스터즈·코딩 경진대회·아트쇼 등

남원시가 올해 10월 개최하는 '2024 남원국제 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024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드론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올해 드론제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행사는 '드론 레저 스포츠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전 세계 1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항공

연맹 (FAI) 드론레이싱 마스터즈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전국 국토부장관배 초·중·고 드론축구 대항전이 개최된다.

또 드론축구와 드론 레이싱 외에도 소프트웨어 (S/W)미래채용사업단과 S/W 중심대학이 주관하는 드론 코딩경진대회와 AI드론 챌린지, K-UAM(도심항공) 기술 개발 경연대회, 농업 방제 드론 경진대회 등 다양한 경진대회도 준비된다.

특히 드론 전시 체험관에선 드론과 로봇이 결합

된 다양한 구성거리가 마련돼 있으며 미래생활관과 드론주제관도 함께 펼쳐진다.

개막식에선 퍼포먼스 공연으로 드론을 활용한 남원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연출하는 드론 드로잉과 연계해 700대 규모의 드론 아트쇼가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S/W 미래채용 창작페스티벌, 남원과학축전, 남원 청소년 직업박람회, 남원 항공 우주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부대행사가 함께 이루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 성공을 위해 관내 전광판, 공식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와 서포터즈 활동, 대행사 채널을 통한 TV 홍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통시장서 장보기 더위 걱정 마세요"

정읍시, 샘고을시장 제1문~8문 446m 안개분무시설 가동



정읍시가 여름 무더위 대비해 이달 중순부터 샘고을시장 주요통로부에 안개분무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사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동 구간은 내 제1문(천변방문)-제8문(솔나무떡방앗간)까지 약 446m 구간이다. 안개 분무는 온도·습도 조건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안개 형태의 물을 분사하는 시설로, 무더위 시장 내부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유지해 이용객과 상인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에는 샘고을시장을 시원한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안개분무 가동을 위해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한 안개분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지난 5월부터는 예비 가동해 이용객과 상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안개분무시설 가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교·대학 여름방학 공동교육 과정 운영

다음달 22일부터 파이선 프로그래밍 등 23개 강좌 학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찾아가는 고교·대학 연계 여름방학 공동교육 과정'을 다음 달 22일부터 운영한다.

이 사업은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을 대학과 연계해 발굴하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3시를 제외한 교육도약지구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며, ▲파이선 프로그래밍 ▲한의학의 정석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등 실용·실습 위주의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고자 전주·군산·익산 지역을 교육 선도지구로 연결하고, 그 외의 11개 시·군은 교육 도약지구로 연결해 지원해 왔다.

올해 참여 대학은 군산대·전남대·전북대·전주대·우석대·원광대·호남대 등으로 총 23개 강좌에 학생 4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 충남대와 광주 조선대로까지 참여 대학 범위를 확장해 예년에 비해 더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은 다음 달 22일부터 8월8일까지 강좌별로 3일간 총 20시간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5-22일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플랫폼(https://jbecredit.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순으로 수강 대상 학생을 선정하며, 선정 학생 학교로 7월 초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